

In brief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ASB 의 IAS 12 ‘법인세’ 기준서 개정 발표

January 2016

Issue

2016 년 1 월 IASB 는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을 명확히 하는 개정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의 세무기준액보다 하락했을 때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와 함께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몇가지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7 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

Impact

추가적인 지침의 내용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세무기준액보다 하락했을 때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는가?

예. 보고기간말 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작다면 언제나 일시적차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미래 과세소득을 예측하기 위해서 자산이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회수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가?

예. 일시적차이의 존재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과 이연법인세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을 예측하는 것은 별도의 단계입니다. 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회수하는 것은 과세소득 예측에 고유한 부분이므로 예상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매도가능채무증권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최초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도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면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회수될 것으로 가정하여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각각 고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로 합쳐서 고려해야 하는가?

각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세법이 특정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수 있는 과세소득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다른 이연법인세자산과 합쳐서 평가하지만, 제한이 있다면 (예: 자본손실은 자본이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경우 등) 동일한 성격의 이연법인세자산만 합쳐서 평가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 미래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하여 감소되는 세효과는 그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미래 과세소득의 예측에서 제외합니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조기적용은 허용합니다. 기업은 이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 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 자본 변동을 서로 다른 자본의 구성항목으로 배분하지 않고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자본의 다른 항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sight

동 개정은 IAS 12의 기존 지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증권의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내용은 특정 분류의 자산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몇가지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의 일반원칙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